

도내 어르신들께 따뜻한 밥상 선물

현대차 전주공장 노사 성금 3000만원도 쾌척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장장 문정훈) 노사가 전북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정성껏 차린 따뜻한 밥상을 대접하기 위해 지난 10일 성금 3000만원을 쾌척했다.

문정훈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장과 정윤규 노조 전주공장위원회 사회연대부장, 김승수 전주시장, 김동수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황의욱 전주 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전주시청에서 진행된 이날 성금 전달식에서 참가자들은 따뜻한 밥상 나눔 사업이 소외계층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다짐했다.

지난 2015년 첫 사업을 시작한 이래 5년째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따뜻한 밥상 나눔 사업은 오는 11월까지 총 10 차례에 걸쳐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전주시 인후동과 완산동 지역 일원에서 전개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는 2015년 성금 6000만원을 쾌척해 첫 사업을 시작한 이래 2016~2019년 4년 간 각 3000만원씩 총 1억8000만원을 들여 따뜻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가 전북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정성껏 차린 따뜻한 밥상을 대접하기 위해 지난 10일 성금 3000만원을 쾌척했다고 밝혔다.

한 밥상나눔 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주시 평화동과 동산동, 인후동, 서노송동, 완산동 등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

계층 어르신 2만5000여명에게 백반, 삼계탕 등 정성껏 준비한 영양 만점 따뜻한 밥상을 대접 중이다. /원주=이종복 기자



전주대, 예술관 리사이트홀 기부자 음악회 진행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지난 9일 예술관 리사이트홀에서 분교 발전에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기부자를 위해 음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은혜와 감사’의 콘셉트로 진행된 이번 음악회는 전주대 음악학과 이주용 교수(피아니스트)와 김주는 바이올리니스트의 피아노와 바이올린 2중주로 잔잔하고 감미로운 선율을 선보였다.

‘참 아름다워라’라는 성가곡으로 시작한 음악회는 7분 동안 하이든 놀람 2악장,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5번,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18번 등 클래식 명곡들이 연주됐다. 연주 중간중간에 작품의 시대배경과 스토리에 대한 해설도 병행되어 관객들의 흥미를 더욱 높였다.

음악회에 이어서 스탠딩 디커피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국제한식조리학교(교장 민계홍) 교수와 학생들이 순수 준비한 떡, 샌드위치, 과일 등을 즐기며 전주대의 최근 소식과 그동안의 개인적 근황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기부자 정희준 씨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음 전파를 위해 몇 년 동안 꾸준히 기부해오다”며, “음악회를 통해 은혜와 감동,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주용 교수는 “전주대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부자들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번 음악회를 준비했다”며, “기부자를 비롯해 전주대를 사랑해주시는 지역민들을 위해 다양하고 재밌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지속해서 보답하고 싶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군산시청 '한울 축구팀', 미 공군 축구동아리와 친선 경기

군산시청 소속 동아리인 한울 축구팀은 지난 11일 공군 제8전투비행단 축구 동아리 간의 친선 축구경기를 개최했다.

시는 한-미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친선 축구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이외에도 군산 근무 미 공군 장병들에게 우리시를 홍보하고 지역을 알리기 위한 군산탐방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최준은 군산시청 축구 동호회장은 “시 공무원에 앞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지역 미 공군과의 우호 증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보람과, 스포츠로 한미가 하나가 되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본 대회에 참가한 양측 선수단은 경기 종료 후 축구와 기지생활, 군산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서로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친목을 다지는 교류의 시간도 가졌다.

한편, 미8전투비행단은 군 북부로 바쁜 중에도 영어교육 봉사, 40여권의 영어 도서 및 학습품 지역사회 기증, 복지시설 방문 및 시설정비 등 정기적으로 봉사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문=김정훈 기자



순창군 다문화센터 권속자 팀장, 여가부장관 표창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지난 10일 열린 '2019년 가정의 달 기념식'에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에 기여한 전 순창군 다문화센터 권속자 팀장이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권속자 전 다문화센터 총괄팀장은 지난 2008년부터 10여 년간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 대한 물질적, 정신적 지원과 인식개선 등에 노력해 왔다.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를 시작으로 교육지원청 위센터 학생 상담사, 순창군 여성 농업인 지원센터 상담사, 순창군 다문화지원센터 총괄팀장을 역임했다.

권씨는 다문화가족들의 자력증 추진을 위해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미용사, 한식조리사 교육 등 직업훈련 교육과 가족사랑 캠프를 통해 가족 관계양상을 지원했다.

또 '다문화가정 시조 합창단' 및 자조 모임에 동참해 동고동락하며 소통했다. 특히 다문화가족에게 만안나, 친정어머니처럼 자신이 가진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눴으며, 309명의 다문화가족들의 행복한 생활과 소외받지 않는 공동체 사회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 가족가치 확산 및 가족관계 증진,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를 포상·격려하기 위해 '2019년 가정의 달 기념 유공자'를 국민추천포상제로 추천을 받았다. /순창=이양원 기자

정읍시 덕천면,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간담회

정읍시 덕천면은 최근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44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어르신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이어 교통안전 교육과 불철 야행진드기 감염 예방 교육이 진행됐다.

이모(76)씨는 “적지 않은 나이이지만 노인 일자리사업을 통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창훈 면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어르신들이 사고 없이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가정의 달 가정폭력 예방

익산경찰서(서장 박현수) 여성청소년과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익산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와 함께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역관서 현장 순회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순회 간담회에는 익산여성의전화 봉귀숙 강사가 간담회에 직접 참석 실제 사례를 통한 현장 대응 요령 및 피해자 보호과정 등을 설명하고, 현장 경찰관들과 함께 유관기관 원활한 업무 협업 방안 논의 및 지역경찰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익산=장인철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는 www.jjmaeil.com에서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